

중기센터, 영세자영업자 '경영 컨설팅'

광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위형요소를 진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자영업 유료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신청은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을 이용,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이며 신청내용은 아이템 선정, 상관분석, 고객관리, 판매전략, 업종변경 등이다.

수수료는 자비 부담으로 건물 3만원이며, 정부 부담은 50만원이다.

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를 하거나 광주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하남센터 (062)954-2084, 남부센터 366-2122, 북부센터 525-2724, 남부본소 651-9600.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은행 '허니문 플랜 적금' 판매

광주은행이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를 위한 신상품 '허니문 플랜 적금'을 10일부터 판매한다.

가입 자격은 20~35세 미혼남녀로 가입금액은 5만원 이상, 월 적립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계약기간은 6개월~3년으로 이율은 정액식과 자유적립식 모두 6개월 이상 3.8%, 1년이상 4.2%, 2년이상 4.5%, 3년제 4.6% 등이다.

가입자는 결혼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고 특정 업소에서 혼수품이나 여행상품 구입시 할인(15%) 혜택도 준다.

외화환전시 수수료 할인(50%), 결혼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결혼·출산시 각각 0.2%P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결혼 예정 신랑 신부중 2명을 추첨해 400만원 상당의 푸켓 여행상품권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최근 웨딩 컨설팅 서비스 전문 업체인 ㈜라메르 하나로웨딩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상품을 내놓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정원, 경제방첩유관기관協 결성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는 지난 7일 광주시·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전남중소기업청·전남지방경찰청·610기무부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방첩 유관기관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는 기술유출사건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화화·다국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기관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국내 첨단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국정원은 지난 2004년 첨단기술보유업체·연구소 보안관계자로 구성된 '산업보안협의회'에 이어 이번에 결성된 경제방첩협의회를 통해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장성군 산업지도 바뀌었다

기아·삼성광주전자 협력사 등 73개업체 속속 입주 1,700명 고용창출-전통 농업郡서 제조업郡 탈바꿈

최근 3~4년 동안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장성군의 산업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73개의 입주업체가 연간 7천여억원의 매출을 쏟아내는가 하면 1천700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도 만만치 않다. 또 연간 185억원의 임금, 1억2천만원의 세수, 60억원의 농산물 판매소득 등은 장성을 전통적인 농업군(郡)에서 제조업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권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장성으로 이전한 업체는 29개, 서울·수원·안성·안양·오산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업체에서 옮겨온 업체도 20개를 웃돈다.

이러 올해에만 13개 업체가 더 들어올 예정이며, 전남도가 승인한 9만2천평의 동화농공단지가 완공되는 내년 말까지 30개 업체를 유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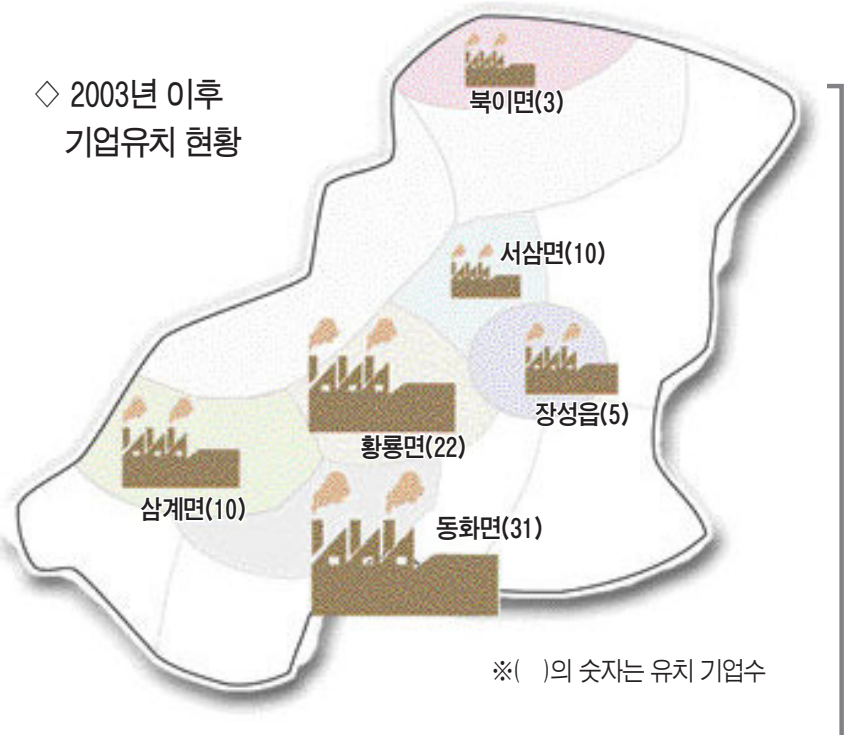
장성군 투자유치과 채금택씨는 "진원면과 남면지역에 추진중인 29만평의 공장부지에는 나노생물소재 실용화센터와 연구소를 건립하고, 50여개의 업체수만 2003년 17개, 2004년 29개, 2005년 20개, 2006년 7개로 모두 73개에 달한다. 이중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는 46개다."

◇소득창출 효과=이들 이전업체의 총 투자액은 1천553억원, 생산액은 7천232억원(기존업체 포함), 고용효과는 1천759명, 임금은 185억원에 이른다. 고용인력 가운데 1천359명은 장성출신, 나머지는 광주출신이다.

재산세를 포함해 사업소세·주민세·법인세 등 연간 장성군에 떨어지는 세수익만 1억2천만원, 공장인근의 식당·수퍼·주유소 등이 벌어들이는 간접수익도 60여억원을 넘는다.

특히 38개 업체가 인근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마을 체험 및 농산물 판매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투자환경 조성=장성군은 2003년 '소규모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 전국



최초로 개별공장 입지가농지 고시 실시했다.

또 개별공장 입지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진입로 확·포장, 옹벽 및 반사경·배수로·차선도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4년여 동안 투자설명회, 타킷기업 방문, 투자자 현지방문 설명회, 투자홍보물 제작배포, 수도권 대형 홍보간판 설치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장부지 앞선에서부터 입주 후 애로사항 해소에 이르기까지 윈스톱 행정서비스를 전개했다.

이욱 홍보팀장은 "장성군은 호남고속도로·KTX가 경유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광주와 인접해 인력수급이 원활할 뿐 만 아니라 삼성광주전자·기아차 광주공장 등 대기업과 유기적인 산업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장성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정성=고재민기자 jbg@

기아차 노사 'UN라인 인원' 합의

울 8만대 생산 돌입...13·14일 신차발표회

노사간 이견으로 1개월이 넘도록 가동하지 못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차 UN(캐논 후속모델) 조립라인이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내 8일 오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일 새벽 조립라인 투입인원을 910명으로 최종 합의하고,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조업을 시작했다. 노사는 또 그간의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무일인 8일과 9일 이틀간 특근을 실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달 노사 합의 아래 1일부터 신차 UN을 양산기로 했으나 조립라인에 대한 투입인원을 놓고 회사측은 845명, 노조측은 1천115명을 각각 주장하면서 라인이 한달 넘게 가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광주공장은 3월 한달간 UN 1천4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비란에 28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양산에 들어가 오는 13·14일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실시될 UN신차 발표회 등 관련행사는 가능하게 됐다.

노사 양측은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티지와 함께 광주공장을 이끌어갈 쌍두마차인 UN생산이 지연돼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UN이 광주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천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UN은 올해 8만대를 시작으로 매년 1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중 60%는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무상정비서비스
기아자동차는 최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안전도 테스트에서 그랜드 캐니발이 만점을 획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지역 차량에 대한 무상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남을 비롯해 백령도·울릉도 등 정비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방문해 차량정비, 소모품 부품교환 등을 해줄 계획이다. <기아차 제공>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돕는다

중기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보육지원을 위해 올해 운영비 78억원(광주·전남지역 7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전국 창업보육센터는 274개로, 입주업체는 4천290개에 달한다. 이중 광주·전남지역에는 24개 센터, 420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신규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의 매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본점 순천 연향동으로 이전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욱)은 오는 17일 순천시 연향동 LG빌딩 6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신용보증재단측은 이번 본점 이전으로 여수·광양·보성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접근도를 높이는 한편 인접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의 편의도

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 3월말까지 3천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9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으며, 자영업자특례보증 등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보증신청은 순천본점(061-729-0600)을 비롯 목포출장소(061-285-0745), 화순출장소(062-374-0743)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의자의 혁명 아라체어 15년 오리지널

세계최초 국내국제 발명특허 의자, 미국 FDA 인증기기 승인

2006.3.10 'VJ특공대' 집중보도

스모즈 이몰렛
스모즈
다이어나 홍물관

태양광주택보급,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신속순 마감

태양광 정부 무상지원 사업부